**제니스, 놀라운 미래를 약속하다**

**제니스는 스위스 시계공학의 미래를 만들고 있다. 길을 인도하는 별이 함께 하는 브랜드 제니스는 기계식 시계의 정확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시계공학의 세계에 우주의 폭발과도 같은 대사건을 일으켰다.**

3월 21일 LVMH 시계부분 장-클로드 비버 사장과 제니스의 줄리엥 토나레 최고경영자가 주관하고 리코딩 아티스트이자 프로듀서 스위즈 비츠와 유명 사진작가이자 바이크 라이더인 앙팡 테리블 디미트리 코스트 등 제니스의 친구들이 참석한 바젤월드 2018 개막 기자회견에서 제니스는 가히 우주의 폭발과도 같이 돋보였다.

이번 이벤트는 디자인을 전면에 부각시키며 새로이 진화한 부스에서 개최되었다. 방문객들은 부스에 들어서자 마자 뉴 컬렉션과 제니스의 새로운 미래 지향적인 모멘텀을 연상시키는, 현대적인 어두운 톤의 대형 Defy El Primero 21(데피 엘 프리메로) 무브먼트의 대담한 모습에 사로잡혔다. 그 뿐 아니라 부스에 준비된 데피 전용 전시실은 여섯 개의 원형 창이 배치된 어두운 세계로 방문객들을 인도하였다. 창 안에는 빠르게 회전하는 메커니즘이 빛의 그래픽을 창조하고 있다. 누구든 1.5 미터 반경 안으로 접근하면 시퀀스가 멈추면서 6 개의 모델 중 하나에 불이 들어와 놀랍도록 섬세한 디테일을 드러낸다. 이런 강력한 감각적 체험을 통해 극도로 역동적이고 트렌디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강한 카스리마와 상승기조를 지닌 시계 Defy(데피)에 어울리는 무대를 제공한다.

제니스의 새로운 시작을 강조하며 줄리엥 토나레 최고경영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니스는 1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세계 시계공학 전문가들의 손목에 기술력과 스타일이 뛰어난 제품을 선사해 왔습니다. 이제 제3의 밀레니엄을 맞아 동일한 DNA를 유지하되 새로운 에너지로 충만한 우리 브랜드는 매력적인 **Defy El Primero 21(데피 엘 프리메로 21)과** **Defy Lab(데피 랩)** 신제품을 선보이며 시간 측정에 있어 새로운 길을 개척하였습니다. Defy El Primero 21(데피 엘 프리메로 21)은 **100분의 1초 단위 측정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였습니다**. 이는 엔지니어링과 성능에 있어 커다란 도약으로, 제니스의 전통과 시계공학의 미래를 결합하는 쾌거입니다. **2017년 제네바 시계 그랑프리를 수상**한 바 있는 Defy Lab(데피 랩)은 **역사상 가장 정확한 시계**로서 시계공학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또한 “2018년에도 우리는 계속 별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브랜드 문화에 확고히 자리잡은 기업가 정신을 십분 발휘하여, 우리 브랜드의 상진인 Defy(데피)와 Pilot(파일럿) 컬렉션의 확장을 지속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Defy(데피) 라인은 미래적인 DNA를 간직한 채 올해 시계바늘 3 개 장착 모델에서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모델에 이르기까지 기계공학적 복잡성의 정도를 달리한 여러 모델을 갖추고 하나의 완전한 컬렉션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시계바늘 세 개와 날짜 표시창을 갖춘 초경량 티타늄 모델 **Defy Classic(데피 클래식)**이 **무심한 듯 시크한 엘레강스의 새로운 차원을 연다**면, 새로운 **Defy Zero** **G(데피 제로 G)**는 최적화된 소형 자이로스코프 “중력 제어” 모듈을 통해 중력의 법칙에 도전하며 **미래적인 하이 워치를 구현한 첫 번째 모델**이 되었습니다. Pilot(파일럿) 시계의 팬이라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P****ILOT Type 20(파일럿 타입 20) 시계의 다양한 새 모델들**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특히 **인기 정상의 PILOT Type 20 Chronograph Ton Up(파일럿 타입 20 크로노그래프 톤 업)**이 새로이 출시되고 컬트 시가 브랜드 코히바와의 파트너십에서 탄생한 새로운 스페셜 에디션도 선보일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Swizz Beatz capsule collection (스위즈 비츠 캡슐 컬렉션)**

바젤월드 개막행사는 또한 작년의 **Defy El Primero 21 Swizz Beatz Edition Unique(데피 엘 프리메로 21 스위즈 비츠 에디션 유니크)**에 이어 올해 Swizz Beatz capsule collection(스위즈 비츠 캡슐 컬렉션)의 런치를 알리기에 이상적인 자리였다. 전세계적인 명성을 누리는 힙합 아티스트이자 프로듀서인 스위즈 비츠는 차별성이 부각되는 일렉트릭 스타일의 초이스와 시계공학에 대한 성숙한 애정으로 유명한데, 그는 이미 시계 애호가와 음악 팬들의 집중 관심을 받았던 2017년 12월 Defy El Primero 21(데피 엘 프리메로 21) 6 개 한정판의 뉴욕 런치를 환영한 바 있다. 제니스는 이제 세 개의 컬러풀하고 매력적인 새로운 스페셜 에디션으로 매니아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것이다. 오렌지 컬러로 액센트를 준 시계바늘에 크라운 링의 밝은 컬러에 매치되는 시각 표시를 장착한 투조세공 다이얼을 직경 44 mm 무광택 마감 티타늄 케이스에 담고, 강렬한 컬러의 앨리게이터 가죽으로 코팅한 화이트 고무 스트랩을 단 Defy Zero G Swizz Beatz(데피 제로 G 스위즈 비츠)는 단 세 개만이 출시될 것이다.

케이스와 스트랩에 모두 음악의 선구자 스위즈 비츠의 영감을 선사하는 어록을 일부 또는 전부 인용하여 새겼다. “사람들에게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절대 얘기하지 마라. 하늘이 한계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한계이기 때문이다”. 같은 문구가 두 개의 Defy El Primero 21(데피 엘 프리메로 21) 에디션에도 등장하는데, 하나는 25 개의 화이트 세라믹 에디션이고, 또 하나는 288 개의 아름다운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베젤에는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5 개의 보석 세팅 화이트 골드 에디션이다. 이 세 컬렉션은 현대 음악의 거장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스위스 시계공학의 미래 구축해 나가는 브랜드가 만날 때, 어떤 일이 가능한지를 잘 보여 주는 강력한 예시라 하겠다.

**세계 최초의 독점 관광 콜라보레이션**

뉴샤텔 지방 관광공사가 선정한 제니스는 시계산업을 더욱 진흥시키기 위한 여러 혁신적인 방법에 특유의 흥미진진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 4월 26일 개시될 ***LE MONDE ETOILÉ DE ZENITH*(르 몽드 에뚜왈레 드 제니스)**는 반짝이는 별이 함께 하는 브랜드 제니스의 세계를 탐험하는 초대장이다. LE MONDE ETOILÉ DE ZENITH(르 몽드 에뚜왈레 드 제니스)는 고품격 제니스 공방의 문을 일반인들에게 여는 최초의 가이드 투어로서, 80여 가지 분야의 장인들이 한 지붕 아래서 작업하는 공방의 내부를 홍보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예술적인 기능을 가진 장인이나 최고 기술을 구현하는 장인이 모두, 조르주 파브르 자코가 150년 전 시작한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들은 창립자의 뜻을 이어 고품격 워치메이킹 전통과 최첨단 혁신을 결합하여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기계공학의 걸작을 만들기 위해 각 공정을 마스터한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2018년 제니스는 다시 한번 별을 향해 나아가며 자신의 미래와 스위스 시계공학의 미래의 새 장을 써 나가고 있기에, 공방 투어의 의미는 더욱 각별하다.

**제니스: 스위스 시계공학의 미래**

1865년 이래 제니스는 탁월함, 정확함, 혁신의 경계를 넓힘에 있어 일관되게 진정성과 대담함, 그리고 열정을 추구해 왔다. 비전을 가진 시계장인 조르주 파브르 자코가 르 로클에서 공방의 문을 연 이래 이래 제니스는 크로노미터의 정확성으로 명성을 쌓아 왔다. 한 세기 반의 세월 동안 2,333 개의 크로노미터 상을 수상한 제니스는 이 방면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록 보유사이다. 1969년 전설적인 El Primero(엘 프리메로) 칼리버가 10분의 1초 단위 측정을 가능하게 하여 유명해진 제니스 공방은 그 이후 600여 가지의 무브먼트를 선보였다. 오늘날 제니스는 100분의 1초 단위 측정이 가능한 Defy El Primero 21(데피 엘 프리메로 21)과, 기계공학의 정확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시계 21st century Defy Lab(21세기 데피 랩)으로 시간 측정의 매혹적인 미래를 새로이 선보이고 있다. 역동적이고 전위적인 사고의 전통에 대한 자부심으로 새로운 힘을 얻은 제니스는 자사의 미래와, 스위스 시계 공학의 미래를 열고 있다.